

京징(경), 去취(큐), 着저(조), 旣지(기), 半반(번), 是시(스)

그리하여 이 책은 두 가지 注音에서 모두 活字本 老乞大諺解와 달라진 것이다. 번역은 平壤版의 특징이 表記, 音韻, 語彙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거기에 漢字 사용이 더욱 늘어난다. 이 책에서 보이기 시작한 漢字 사용을 처음 10장에서 들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能히, 萬一에 (2b), 詩님기, 講호노라 (3b), 一定 (5b), 父母 (7a), 溫厚호여 (8a), 比컨대 (9a), 貴姓, 賤姓 (9b), 正히 (10b)

여기에 課의 수효가 늘어난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平壤版까지는 모두 107과였으나 4과가 늘어나 111과가 된 것이다. 課가 늘어난 것은 일부 내용을 보충하여 한 課를 둘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方鍾鉉선생의 보고에 따르면 老乞大新釋諺解 권3이 제 111과로 끝난다 하였으며,²³⁾ 새 課 앞에 권표를 둔 老乞大新釋에서 그것이 확인된다. 나뉜 課는 老乞大諺解의 제 81, 84, 98, 99과인데, 이 책의 권3이 전하지 않으므로 똑같이 111과인 重刊老乞大諺解(권下)로써 새 課의 차례와 시작을 보이므로 괄호 안에 老乞大諺解(권下)의 해당 부분을 대조하여 둔다.

제82: 33b9 (제81: 31b4)

제86: 37a6 (제84: 34b4)

제101: 54b3 (제98: 52b1)

제103: 56b4 (제99: 54b2)

(5) 重刊老乞大諺解

木版本 上下 2권 2책인 이 책은 書名이 戊申字本인 老乞大諺解의 重刊으로도 이해되지 만, 重刊老乞大를 언해한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重刊老乞大는 序跋이 없으나 책 위에 '乙卯仲秋 本院重刊' 이란 刊記가 있고 그 바로 앞에 校檢官 李洙등 7명, 校整官 洪宅福등 10명, 書寫官 崔臧등 10명, 監印官 張壽의 명단이 있으므로 이들 28명에 이르는 司譯院 前現職官僚의 활동연대를 감안하여 1795년(正祖19 乙卯) 司譯院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重刊老乞大諺解는 老乞大新釋諺解와 朴通事新釋諺解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附屬 文字가 없다. 그러나 原典인 重刊老乞大의 字體와 비슷하고, 刊記등을 합해도 모두 46장인 重刊老乞大의 書寫官으로는 10명이 이해되지 않으므로 이 책도 原典인 重刊老乞大와

23) 앞 각주 2)의 方鍾鉉선생의 앞 論文에서 처음으로 보고하였으나, 어떻게 하여 課가 늘어났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 각주 1)의 別冊附錄에서는 重刊老乞大와 重刊老乞大諺解에서 난상에 붙은 '百十一'이라 쓴 것이 있다고 하였다.

동시에 편찬,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熙政堂’이란 印記를 가진 奎章閣 소장의 한 책(규2043)은 앞 표지 上包角의 자리에 ‘乙卯重刊’이란 墨書가 있다. 1796년에 완성된 鏤板考에 ‘老乞大一卷 諺解二卷 司譯院藏’이라 한 기록도 重刊老乞大와 함께 이 책이 1795년의 간행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책은 상당히 많이 전한다. 奎章閣에도 原典과 합하여 20종이 넘는 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은 初刷本과 後刷本의 두 종류로 크게 나뉜다. 우선 原典으로써 보면, 後刷本은 刊記가 인쇄되지 않았고, 書寫官인 ‘宣務郎前司譯院主簿李光祐, 宣務郎前司譯院主簿吳命毅’는 각각 처음 ‘宣’과 ‘簿’ 이하 이름만 인쇄되고 ‘務郎前司譯院主’ 등이 보사되거나 빈칸으로 되어 있다. 本文에도 脫字가 있을 뿐 아니라 字畫의 마모가 있다. 이러한 脫字와 字畫의 마모는 이 책의 後刷本에도 같다. 이러한 後刷本은 꽤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原典과 함께 1795년에 간행되었으나, 冊板의 마모가 어느 정도 있는 뒤에 다시 상당한 부수가 인출된 것이다.²⁴⁾

이 책의 版式은 老乞大新釋諺解와 똑같다. 차이라고 한다면, 半郭의 크기가 세로 가로 22.3cm, 16.3cm이며 版心에서 張次 아래 가로줄을 둔 점이다. 諺解의 체재도 課를 새 행으로 한 것까지 같으나, 老乞大諺解의 原文과 注音의 右側음이 삭제되었다. 그리하여 다른 諺解書와 같이 2권으로 되어 있다.

本文의 原文은 原典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나, 新釋老乞大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책의 장 1 앞쪽 原文으로써도 다음과 같이 차이가 드러난다. 괄호 안이 新釋老乞大다.

大哥你從那裏來(阿哥你打那裏來)

如今那裏去(這回兒那裏去)

你幾時在王京起身來着(你多站在王京起身來着)

我在這箇月初一日離了王京(我在這箇月初一日間離了王京)

既是這箇月初一日離了王京(既然這箇月初一日間從王京起身的)

이로써 보면, 新釋에서의 수정을 일부 다시 원래의 老乞大로 되돌린 것이 있다. 물론 新釋의 수정을 수용한 것도 많다. 이는 아마도 新釋의 수정이 洪啓禧序에서 말한 ‘逐條改證別其同異 務令適乎時便於俗’이라든지 ‘今此新釋 以便於通話爲主’라 한 방침에 말미암아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니었나 한다. 重刊老乞大는 지나친 時俗에 따른 新釋의 수정을 받아

24) 앞 각주 1)의 影1 別冊附錄에서는 刊記가 없는 책으로 字畫의 마모가 있는 重刊老乞大와 重刊老乞大 諺解가 먼저 간행된 뒤에, 乙卯重刊이란 刊記를 가진 책들은 그것을 覆刻한 것이라 하였다. 그 근거는 아마도 補寫에서 刊記가 있는 책의 ‘前司譯院主簿’가 ‘司譯院主簿’로 된 데서 구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後刷本의 간행에서는 편찬과 간행에 관여한 司譯院官僚의 前現職이 이미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補寫에서 ‘前’을 뺐 것이 아닌가 한다. 初刷本에 보이는 떨어진 邊欄이나 印面의 특징이 後刷本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覆刻本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

들일 수 없다는 인식에서 편찬, 간행되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老乞大新釋과 그 諺解가 간행된 지 겨우 30여년인데도 다른 譯學書新釋類와는 달리 이루어진 重刊老乞大와 이 책의 刊行은 이해된다.

이 책의 注音과 번역은 老乞大新釋諺解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注音은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번역문에 나타나는 表記, 音韻, 語彙의 특징도 똑같다. 그러므로 國語史資料로서 갖는 특징은 따로 설명할 것이 없다.

4. 맺는말

老乞大는 지난 시기의 기본적인 漢學書였다. 그리하여 老乞大의 原典과 그 諺解書가 譯學書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異本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異本에 대하여 검토하고 설명하여 왔다. 이제 그것을 요약하여 맺는말로 삼는다.

老乞大의 原典은 甲寅字覆刻本이, 적어도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가장 오랜 善本이다. 그 책은 冊의 상태나 붓으로 기입된 내용으로 미루어서 16세기 전반의 刊本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甲寅字本은 늦어도 15세기 후반에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覆刻本으로써 15세기 후반의 原典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다. 그밖에 16세기 후반이나 17세기 刊本으로 보이는 木版本 두 종류가 전한다. 내용은 위의 覆刻本과 같다. 앞의 세 異本이 모두 不分卷이나, 諺解書와 같이 上下 2권으로 分卷이 된 原典도 있다. 刊記에 따라 1703년에 간행된 것이 분명한 그 책은 原文이 수정되지 않은 마지막 異本이 된다.

原文의 수정은 18세기 후반에 司譯院에서 행해진다. 15세기부터 사용되던 老乞大로는 中國사람과의 通話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시 中國語의 時俗에 따라 수정된 老乞大新釋이 譯學書新釋類의 端初로서 1763년 편찬,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수정이 지나치게 時俗을 좇고 通話 위주라는 인식이 곧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老乞大新釋의 일부 내용은 오히려 老乞大에 더 가까워진 수정이 행해져서 1795년 重刊老乞大가 간행되었다. 老乞大新釋이 간행된 지 30년 남짓한데도, 더욱이 新釋類에 그러한 예가 없는데도 重刊老乞大가 간행된 것이 그와 같은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老乞大新釋은 말할 것도 없지만 重刊老乞大도 老乞大의 옛스런 말투를 크게 수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學習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課가 107과이던 것을, 4과를 각기 두 課로 나누어 111과로 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에 老乞大는 原文이 수정되고 課의 수효가 늘어난 異本 두 가지를 갖게 된 것이다.

현재 전하는 諺解書는 崔世珍이 번역한 翻譯老乞大 2책의, 16세기 중엽의 간행으로 보이는 乙亥字覆刻本이 가장 오랜 책이다. 乙亥字本은 같은 乙亥字本인 翻譯朴通事와 함께 16세기 10년대 전반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책은 16세기 司譯院에

서 학습된 中國음을 알려 주며, 동시에 당시 國語자료 곧 中世國語자료를 제공한다. 거기에다가 이 책은 최초의 譯學書諺解로서 후대의 譯學書, 특히 漢學書諺解의 典範이 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原文을 잘막한 語句로 나누어 注音하고 번역을 대조하는 譯學書의 諺解 방식이 이 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老乞大의 두번째 諺解書는 戊申字本 老乞大諺解다. 乙亥字本보다는 150여년, 그 覆刻本보다는 100여년 뒤에 나온 이 책은 課를 분명히 나누어 보이고 번역을 近代語로 행하였지만, 기본적으로 翻譯老乞大에서 행한 中國語의 注音과 번역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 注音은 傍點을 폐기하고 부분적인 수정을 하였을 뿐이고, 번역도 △, ㅅ, 傍點이 없으나 翻譯老乞大의 그것을 크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책은 印出과정에서 일어난 誤字를 그대로 둔 책과, 校正을 거쳐 組版까지 새로 한 책이 전하고 있다. 影印本을 간행하면서 底本을 앞의 未校正本으로 하였으므로 影印本으로 이 책을 이용할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세번째 諺解書는 위의 老乞大諺解를 司譯院에서 수정하여 1745년 平壤監營에서 중간한 책이다. 書名에서 體裁까지 老乞大諺解와 같으나, 原文 漢字의 注音에서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서 四聲通攷音을 따랐다는 左側音을 대폭으로 수정한 것이 특이하다. 이 책으로써 200년이 훨씬 넘게 계속된 中國音학습의 두 방식 가운데서 한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번역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번째와 다섯번째 諺解書는 原文을 수정한 老乞大新釋과 重刊老乞大와 동시에 간행된 諺解書들이다. 老乞大新釋諺解는 原文漢字의 注音에서 左側音은 平壤版 老乞大諺解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右側音을 크게 수정하였다. 여기에서 中國語의 注音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老乞大諺解의 右側音도 한 課가 끝나면 老乞大의 原文과 함께 실었다. 이것을 新釋老乞大의 洪啓禧序에서 '存羊之意'라고 하였으나 原文의 수정과 注音의 右側音 개정이 너무 지나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대한 배려가 아닌지 모른다. 그것은 어쨌든 이러한 老乞大諺解의 原文과 右側音의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책은 다른 諺解書와 달리 3권 3책으로 간행되었다. 重刊老乞大諺解는 原文 漢字의 注音과 번역은 老乞大新釋諺解를 따랐으나, 그 책의 덧붙임을 없이하여 다른 諺解書와 같이 2권 2책으로 되었다. 이로써 老乞大의 諺解書는 멀리는 翻譯老乞大, 내려와서는 老乞大諺解와는 注音과 번역이 모두 달라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司譯院이 없어질 때까지 老乞大 학습의 참고서로 사용되었다. 諺解書의 다섯번째 異本이면서 그 마지막 諺解書다.

《Abstract》

On the different Version of Nogöldaē and Nogöldaē Ŏnhaē**Ahn Pyong-Hi**

Nogöldaē(老乞大), namely Laoch'ita was the most basic textbook used at the Bureau of Interpreters of Foreign Language in the Chosŏn Dynasty. Therefore Nogöldaē, and its Korean translation, Nogöldaē Ŏnhaē(老乞大諺解) have respectively many different vers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se different versions.

The oldest version of Nogöldaē existing is the wood-cut reprint of Kabin-ja(movable types minted in 1434). Through the frame of version, this may have been published in the beginning of sixteenth century. There are two different wood-cut editions which were from the same text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or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These three editions respectively have wood-cut editions consisting of one volume. There is a wood-cut edition consisting of two volumes published in 1703. However its text is not different from other editions. There exist two editions; one is Nogöldaē Sinsŏk(老乞大新釋), revised version of text in 1763, and the other is Chunggan Nogöldaē(重刊老乞大) which was re-revised version of text, published in 1795. This is the last edition of Nogöldaē.

Among Korean translations of Nogöldaē, Pŏnyŏk Nogöldaē is the oldest edition. It may have been published in the middle of sixteenth century. It is a wood-cut reprint of the Ŭlhaē-ja(movable types minted in 1445) edition and was translated by Ch'oe Se-jin(崔世珍) in the 1610's. The second oldest edition we have is the Musin-ja(movable types minted in 1668) edition. The translation of this version is different from Ŭlhaē-ja edition. The third translated edition which was published at Pyŏng'yang in 1745 has the modified transcription of Chinese pronunciation from the Musin-ja edition. The fourth and fifth of translations of Nogöldaē respectively were published as a translations of Nogöldaē Sinsŏk in 1763 and Chunggan Nogöldaē in 1795. Their translations and transcriptions of Chinese pronunciation we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editions. The translated editions consist of two volumes, however, only the fourth edition consists of three volumes.